

빅히트 2대주주 넷마블 ‘잭팟’... 반짝 다상에도 ‘돈방석’

빅히트 증가 25만8000원 마감 10배 이상 차익 전망... 1조 이상 디피씨 등 빅히트 관련주는 약세 “향후 넷마블도 주가 변동성 확대”

netmarble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5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빅히트에 투자해오던 넷마블은 이번 기업공개(IPO) 흥행으로 인해 1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넷마블은 빅히트 주식 25.1% (713만4112주)를 보유하고 있다. 방시혁 빅히트 의장(45.1%)에 이어 2대 주주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히트는 25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빅히트의 시초가인 27만원보다 4.4% 하락해 예상했던 수익률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장 중에는 35만1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상장 후 빅히트의 주가 흐름에 따라 넷마블이 보유한 주식 가치 또한 높아

졌다. 이날 기준 넷마블의 보유 주식 가치를 환산하면 1조8406억원이다. 초기 투자금보다 10배 가까운 수익을 얻은 셈이다.

한편 빅히트는 코스피 시총 순위 27위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상한가가 풀린 후 8조7300억원대를 유지하며 32위에 안착했다.

넷마블은 지난 2018년 4월 빅히트에 2014억원을 투자했다. 이 당시 주목받은 것은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과 방시혁 빅히트 대표의 관계였다.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로 당시 빅히트의 기업가치가 1조원으로 평가받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거액의 투자금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넷마블을 비롯한 빅히트 관련주들은 빅히트가 상한가에서 내려오자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빅히트 관련주로는 ▲2대 주주인 ‘넷

마블’ ▲빅히트에 투자한 스틱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 고압변성기 제조업체 ‘디피씨’ ▲BTS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준비 중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 ‘초록밴’ ▲BTS 일본 팬클럽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SMC의 모회사, ‘키이스트’ 등이 있다.

이날 넷마블(-9.87%), 디피씨(-19.85%), 초록밴(-16.01%), 키이스트(-7.72%) 등이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빅히트 상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치솟았던 주가가 차익실현 등과 맞물리며 조정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넷마블은 이미 이전 주가에 빅히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아 대신증권 연구원은 “넷마블은 빅히트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따라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분가치를 모두 고려해도 현 주가에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기념식에 (왼쪽부터) 박태진 제이피모간 서울지점 대표이사, 박지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HQ CEO, 윤석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Global CEO,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가 참석했다. /한국거래소



방시혁 “기업·아티스트·소비자 상생하도록 산업 혁신”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상장 기념식서 사회 밝혀 주주와 사회에 책임 의식 엔터 플랫폼 기업 목표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은 15일 “이제 상장사로서 주주와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 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 상장기념식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주주 한 분 한 분의 가치 제고를 위해 투명성, 수익성, 성장성, 사회적인 기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빅히트는) 음악과 아티스트에 기반한 공연과 영상, 공식 상품은 물론 교육과 게임 등 이종 산업 융합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음악산업을 확장해 나가겠다. 빅히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과 아티스트를 기획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팬덤 비즈니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으로서 이를 사업부가치로 가장 잘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악과 아티스트로 모두에게 위안을 주겠다는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최고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방 의장은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아티스트, 소비자, 이 산업의 종사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혁신시키고 성장시키겠다”며 “이것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저희 빅히트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빅히트 상장기념식에는 방 의장을 비롯한 빅히트 임직원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빅히트 유튜브 채널로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됐다. /박미경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에 상장한 첫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기념식에서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이 기념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이 지킨 건강보험! 이제는 국민을 지킵니다.



‘턱’스크 NO!!



마스크 YES!!



‘입’스크 NO!!

코와 입을 모두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